

사람을 세우는 지혜

성경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 ~ 27절>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됴이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15]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23]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하루 일과 가운데, 중요하면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속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사람을 세우도록 충고하셨습니다.

모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만을 위해서, 혹은 관리를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백성 모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설명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도, 혹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기준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있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원칙을 정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사람을 뽑을 때, 원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먼저 정해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이 일에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게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하여 이 사역과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알도록 힘쓰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를 잊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입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주님께 동역할 사람을 구하되, 주님의 방법과 기준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2.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